

‘아트광주’ 한국미술협회가 맡는다

광주문화재단과 공동 주관... 개최 4회만에 세차례 바뀌어

지역문화계, 화랑·딜러 빠진 박람회 성격 행사될까 우려

한국미술협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아트광주’를 주관한다. ‘아트광주’는 지난 2010년 광주비엔날레, 2011~2012년 광주문화재단을 거쳐 한국미술협회로 창설 4년만에 운영단체가 세 차례나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역 미술계와 화랑계에서는 한국미술협회의 인적네트워크를 이용한 성공 개최에 대한 바람과 함께 자칫 아트페어보다 박람회 성격의 행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1일 광주시와 문화재단, 한국미술협회에 따르면 오는 9월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는 ‘아트광주’를 한국미술협회와 광주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한다.

광주시는 한국미술, 문화재단 등과 의견

조율을 이미 마쳤으며, 2일 열리는 광주시 전시지원협의회에서 최종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전시지원협의회는 광주시에서 주최하는 미술 전시와 관련된 자문협의회로 공무원, 작가, 교수, 큐레이터 등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됐다.

한국미술협회와 문화재단이 공동주관함에 따라 한국미술협회는 ‘아트광주’ 참여 화랑 섭외, 예술감독 선임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관이지만 문화재단은 장소 대관 등의 일 외에는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떼는 셈이다.

타 시·도의 경우 인천, 강원, 경남 지역의 아트페어가 미술협회 각 시·도지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미술협회는 아트광주 사무국을 미술협회 광주시지부에 개설할 예

정이다. 한국미술협회가 아트광주를 주관하게 된 데에는 문화재단이 아트페어 운영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포기의사’를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아트광주가 끝나고 열린 평가 회의에서 부실한 홍보 마케팅 전략과 전문성 결여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행사를 지역행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도 받았다.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에 순천 출신의 조강훈 이사장이 선출된 것도 한국미술협회가 아트광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시는 한국미술협회가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내·외 유명 갤러리와 후원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아트광주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트광주를 6개월 앞둔 이날 현재까지 아트광주사무국과 예술감독 등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등 한국미술협회가 촉박한 시

간 내에 얼마만큼 완성도 있는 행사를 치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는 문화재단이 연초부터 사무국을 개설하고 예술감독을 내정해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했었다.

부족한 예산도 문제다. 지난 2010년 6억 2560만 원에 이르던 아트광주 예산은 지난해 4억5000만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아직까지 3억5000만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되면 곧바로 예술감독 선임과 기업 후원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난해보다 더 나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계 한 관계자는 “아트페어는 비즈니스다. 미술협회는 작가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단체인데, 생산자가 직접 주관을 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며 “자칫 화랑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되면서 화랑과 딜러들이 빠진 아트페어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예술과 삶이 있는 곳



김진희·화가 신수정씨 ‘제희갤러리’ 10일 오픈

전시·생활 어우러진

‘Living art lounge’

세미나·문화교류 공간 계획

10일부터 신수정 개관기념전



신수정 작 'Happy our garden'

25년 우정을 나눈 동갑내기 친구가 있다.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그 화가의 ‘유일한’ 후원회원이다. 예술과 친숙하지 않았던 한 사람은 친구 따라 전시회를 다니고, 미술관을 방문하며 조금씩 눈을 뜨워갔다. 두 사람은 몇 년 전부터 ‘예술’과 ‘삶’이 함께하는 공간을 꿈꿔왔다. 화가 신수정(45)과 김진희(45·세광고업 대표)씨 이야기다.

2년 전 어느날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양옥집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8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고, 오는 10일 ‘제희(濟喜)갤러리’가 문을 연다. ‘기쁨을 바란다’는 뜻의 갤러리 이름은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두 사람의 생각을 담아 지었다.

‘제희 갤러리’는 2층 양옥집을 개조해 공간 배치가 재미있다.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마당에서 시작되는 갤러리 입구부터 독특하고, 전시 공간이 사방에 흩어져 있다.

나무로 뒤덮인 탁 트인 천정은 한옥에 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입식과 좌식을 모두 갖춘 갤러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다락이 놓인 온돌방. 이곳에서 바라보는 갤러리 내부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다. 간단한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공간이다. 책들이 놓여 있는 다락방도 만들었다. 이곳은 레지던시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또 커피 등 차를 마실 수 있는 널찍한 공간도 마련했다.

실내 디자인과 공간 구성은 모두 신씨가 맡았다. 갤러리 안에 놓은 다락이며,

타자 등도 직접 골랐다.

김진희씨가 갤러리 대표를, 신수정씨가 갤러리 디렉터를 맡았다. 큐레이터 유지현씨가 함께 힘을 보탠다.

‘갤러리’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전시 뿐 아니라 예술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진 ‘Living art lounge’, 문화예술전문가들이 들려주는 트렌드 세미나,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과 문화 교류 체험, 다양한 모임과 파티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두 사람은 이곳이 작가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계속되는 개관 기념전은 신수정씨의 작품들을 모은 ‘Happy our garden’전이다. 7년만에 개인전을 갖는 신씨는 이번 전시에서 올해 작업한 신작들을 선보인다.

반복되는 원형과 면들로 구성된 다소 비슷한 보이는 작품들에게 각각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건 변화무쌍한 색채다. 화폭에서 발산되는 화려한 색감들은 밝은 기운을 전해준다.

신수정씨는 “그림을 보는 데서 벗어나 많은 이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구성했다”며 “혹여 문화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9301.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4회째를 맞는 아트광주가 한국미술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광주시는 한국미술협회가 국내·외 유명 화랑들의 참여를 유도해 행사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김환기 전기’ 둘러싸고 재단-저자 갈등

재단 “저작권 침해·명예훼손” 작가 “표현의 자유... 부끄러움 없다”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아 최근 출간된 신안 출신의 한국 추상화의 대가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전기를 놓고 환기재단과 저자 사이의 다툼이 벌어졌다. 작가 이종렬씨는 최근 ‘김환기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유리창)(사진)를 출간했다.

환기재단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종렬씨가 책을 쓰면서 환기재단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김 화백과 김 화백의 부인 김향안 여사의 작품과 초상사진을 무단으로 사

용해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조만간 저자와 출판사를 고소하고 책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단이 문제 삼는 부분은 이씨가 책에 김 화백의 작품 도판 8점과 김 여사의 사진에 배경으로 등장한 작품 25점, 김 화백의 초상 사진 32점과 김 여사의 초상 사진 12점을 수록하면서 사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여 재단은 “책 제목조차도 환기재단에서 출간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

랴-김환기 에세이’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했다”며 “김 화백 및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책 내용도 가십거리 위주로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책 서문에 “환기미술관 측에 초고를 제출했는데, 환기미술관이 새 여인과 양자 부분, 김환기와 김향안, 이상을 동시에 언급한 부분, 일기와 편지 인용 부분, 사망 원인과 한인주치의 관련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내왔다”며 “삭제 요청은 김환기의 삶 일부에 대한



은폐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썼다.

이씨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양상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는 만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 본문에는 ‘김 화백의 부인인 김 여사가 스무살에 오빠 친구인 천재시인 이상과 결혼했고, 이상과 사별후 김 화백과 결혼하면서 변용명에서 향안으로 이름을 바꿨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김경인기자 kki@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